



배포 일시	2023. 3. 13.(월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김강문 (044-201-460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따른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023년 3월 12일 22시 09분경 발생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대응하여 시설점검 등 응급조치를 거쳐 현재(13일 07시) 화재 인접구간을 서행(170km/h)하며 고속선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.
 - 어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경부 고속선 열차 상하행 일부구간을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(12일 23시 이후)했으며, 선로, 전차선 등 인근시설에 대해 화재 분진, 열에 의한 손상 등을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마쳤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시설 등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어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철도재난 상황반*(철도안전정책관 반장)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 - * "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"에 따른 주의단계에 준하여 운영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선로, 전차선, 차량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안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,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” 면서,
 - “열차 운행시간 조정, 정차역 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리집, 앱(App) 등을 통해 안내를 철저히 하라” 고 철도상황반에 지시했다.